

나주 금천면 도로 비만 오면 물바다

도로개설 과정서 배수로 제대로 설치 안돼

동절기엔 결빙 사고 우려… 市 ‘모르쇠’ 일관

나주시가 도로를 개설하면서 배수로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나주시는 책임을 회피하는 등 모르쇠로 일관,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18일 나주시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총 사업비 8억8000여만원을 들여 금천면 촌곡리 일원에 농어촌도로 확·

포장공사를 실시, 5년여만인 지난달 10월 공사를 완공했다.

하지만 해당 도로의 경우 폭 8m인 2차선 도로로 개설됐으나 전체 1.255km 구간에 배수로가 고작 3곳만 설치돼 비가 내릴 경우 도로의 노면수가 인근 주택과 과수원으로 흘러들게 돼 각종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배수로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

다 보니 동절기에는 도로가 결빙돼 교통사고까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공사 과정에 인근 주민들이 나주시에 배수로를 제대로 설치해 줄 것을 수차례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뚜렷한 대책 없이 묵살해 원성을 사고 있다.

시민 B씨(47·나주시 금천면)는 “나주시를 비롯해 시의원, 시공사 등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해 현장 방문 까지 이뤄졌는데도 아직까지 배수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묵묵부답인 나주시 행정에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이에 대해 나주시 관계자는 “사업이 완전 미무리된 상태가 아닌 만큼 남은 0.8km 구간을 연결하는 공사를 실시하면서 배수로 설치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일반적으로 도로를 개설할 경우 노면수 등의 영향을 감안해 20m 당 1개씩의 배수로를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번 농어촌 확·포장 도로의 경우 설계 자체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지적까지 제기되고 있다.

/중부취재본부=최승렬기자 srchoi@



김장김치, 전통김치냉장고 ‘옹기’에 보관하세요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관광객들이 강진군 칠량면 봉황리에 위치한 봉황옹기(주)를 찾아 옹기를 구입하고 있다. 옹기는 한때 플라스틱의 등장으로 사양길로 접어들었으나 최근 월별업품으로 전통 밸효식품에 관심이 쓰리며 다시 각광받고 있다.

/중부취재본부=남철희기자 choul@

여수 세계박람회 얼마 남지 않았는데



환승주차장은 아직도 오리무중

지난 16일 여수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2012 여수 세계박람회’ 환승주차장 설치 관련 공청회(시진)

여수시의원들과 지역 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석한 이날 공청회는 매우 심각하고 격앙된 모습이었다. 바로 박람회 환승주차장 부지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날 공청회는 시의회에서 여수 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에 참석해 조직위원장을 보냈으나 실무자는 참석하지 않았다.

‘2012 여수 세계박람회’ 개최를 불과 500여일 앞두고 있는 현재 조직위가 아직 환승주차장 계획을 확정하지

않아 지역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환승주차장은 박람회 개최시 여수시내권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관람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것으로 현재까지 여수산단 유류부지와 돌산 상포구 등이 대상지역으로 논의돼 왔다.

조직위는 여수시가 제안한 돌산 상포구 등 4곳을 환승주차장으로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지난 5월 용역 결과 주차 면을 3만대 규모로 늘릴 수 있게 산단 유류부지 등 총 7곳(순천, 광양 보조주차장 포함)으로 변경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공청회에서 전남대 최창호교

수는 “조직위 변경안이 국도 17호선으로만 편중된 점과 평일과 주말의 관람객수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며 문제점을 지적하고 “셔틀계획 등을 세밀하게 마련해 원활한 이동과 관광 시너지효과를 창출해야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수시의회 박람회지원특별위원회 고효주 위원은 “조직위가 여수시와 시민들과의 적절한 협의도 없이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특별법에 명시한 의무도 등장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효준 시민포럼대변인은 “박람회장 인근에 도보로 접근할 수 있는 주

차장이 없는 사례는 없었다”며 “현재 논의되는 주차장 계획은 관람객들의 이동거리를 너무 멀고 이로 인해 교통체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여수박람회가 정부주도의 세계적 행사임에도 정부와 조직위가 적극적인 대책수립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조직위 관계자는 “행사장까지 30분 이상 걸리지 않게 관람객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해 환승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김창희기자 chkim@

목포서 ‘아·태 해상풍력 심포지엄’

정부가 해상풍력발전 산업에 밸벗고 나선 가운데 해상풍력 관련 심포지엄이 목포에서 열린다.

목포대 해상풍력 중심 신재생에너지 국제 양성센터와 전남도는 19일 현대호텔 목포 1층 컨벤션홀에서 ‘2010 아시아·태평양 해상풍력 심포지엄(APSOWET 2010)’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해상풍력 관련 선진국인 덴마크를 비롯해 중국, 일본, 미국, 인도네시아, 캐나다 등 외국연사 10명과 국내 해상풍력 전문가

2명 등 7개국 12명의 초청연사가 참여해 ▲해상풍력의 현황과 전망 ▲해상풍력 지원의 활용 ▲해상풍력 발전 기 연구개발 등 3개 주제를 발표·토의한다.

센터 관계자는 “아시아, 태평양, 유럽, 북미지역의 해상풍력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각국의 해상풍력 정책소개와 함께 기술정보교류, 인적 네트워크 구축으로 전남도 해상풍력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영광에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

소·돼지 등의 가축분뇨에서 바이오가스를 뽑아 전력을 생산하는 가축분뇨 바이오에너지화 사업 시설이 영광에 들어선다.

영광군은 18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양돈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축분뇨화에너지 사업계획을 고회와 함께 시설투자자인 주정림과 투자협약식을 가졌다.

축산분뇨의 에너지화는 축사에서 수거된 분뇨를 수집조를 거쳐 발효조에 투입, 일정기간 메탄발효를 유도시키게 되며, 이때 생성된 메탄가스로 발전기를 돌려 전력을 생산하는 과정으로 이뤄진다. /서부취재본부=조의상기자 ischo@

이번 사업에는 국비 18억, 도비 6억, 군비 9억, 읍자 12억, 정립 총 15억 원 등 총 60억원이 소요된다.

군은 올연말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내년 6월 시설을 완공한뒤 시운전에 들어갈 계획이다.

축산분뇨화에너지화는 축사에서 수거된 분뇨를 수집조를 거쳐 발효조에 투입, 일정기간 메탄발효를 유도시키게 되며, 이때 생성된 메탄가스로 발전기를 돌려 전력을 생산하는 과정으로 이뤄진다. /서부취재본부=조의상기자 ischo@

현대공인중개사

토지 급 매매

▶서구 마륵동, 생산농지, 3002㎡(908평), 매매가 15억원대출 농협7억 김대중くん센션 인근, 교회식당 창고 공장 용도다양

광산구 토지 매매

▶광산구 양동, 계획 관리지역, 28,845㎡(8,725평), 토지 전체면적 15,818㎡(4,784평) 전용되어있음 건축물 637.46㎡(192.83평), 현재 썰매장, 적합한 용도 : 기도원 수련원 공장 창고 사회복지시설(요양원, 요양병원), 전원주택 부지로 개발 가능, 매매가 협의 후 결정

▶송학동, 계획관리지역, 2차선도로에접, 21914㎡(6,629평) 매매가 22억

수익성 좋은 상가건물 매매

광산구 우산동, 대지 321㎡(97평) 건물 지하1층 지상6층 1326㎡(401평) 임대 내용 : 보증금 2억1천5백만원 월 74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아파트 2,300세대인근, 대출 3억원, 매매가 12억원

▶본 광고물건은 전속 계약 된 물건임 ■

T. 062)371-1900, 010-2006-0115

상무 우리병원에서 50m자점 www.8565949.co.kr

GG경매컨설팅(주)

대표이사 노찬구 ☎ 222-1907
공인중개사 010-9311-1907

▶상가주택

지역 소재지 대지/건물㎡ 경첨가 최저가 비고

광산구 수원동 662/301 30억천백 2억 3억2천4백

월곡동 206/153 1억천백 1억천백 1억천백

남구 백운동 347/273 3억천백 2억천백 5천

동구 산격동 234/964 1억천백 2억천백 5천

북구 두암동 211/291 3억5천백 2억천백 3억5천

봉산동 527/621 4억천백 3억천백 3천

봉동 530/879 6억천백 6억천백 3억

동광동 125/127 1억천백 1억천백 3천

서구 풍정동 225/567 4억천백 3억2천4백

▶근린시설/근린상가/주유소

지역 소재지 대지/건물㎡ 경첨가 최저가 비고

광산구 월드컵 112/354 27억천백 1억천백 2억

월드컵 110/18 3억5천백 1억천백 1억천백

광산구 307/0488 25억2천 1억천백 1억천백

전구 252/53 1억천백 1억천백 1억천백

▶공인중개사 : 강영희 ☎ (062)364-8700 H.P 010-4608-3700

“그때 그시절이 생각납니다”

황포돛배 타고 영산강 유람

나주에 이어 영산강 하류인 목포에서도 전통 한선인 황포돛배가 뛴다.

전남도와 목포시는 공동으로 영산강 유역 하류지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생태관광 패러다임인 ‘영산강 황포돛배 목포호’를 띠워 옛 추억과 향수를 되살리는 관광상품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황포돛배는 전장 25m·폭 5m, 승선인원 49명 규모의 전통 한선

(24t)으로 3억9600만원을 들여 건조됐다.

운항구간은 목포시 옥암동 계류장을 출발해 영산강을 가로질러 무안과 영암을 잇는 ‘무영대교’까

지 왕복 20km로 운항시간은 1시간 30분이 걸린다.

목포시는 황포돛배 운영·관리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지난달 21일 민간위탁업자(한남페저타운)를 선정하고 이달 말께 취항식을 할 예정이다.

/서부취재본부=임영춘기자 lyc@



▶아파트

지역 소재지 대지/건물㎡ 경첨가 최저가

광산구 월드컵 215/65 4억6천백 3억2천4백

서구 대방동 121/36 2억 1억5천백

장수동 121/36 1억천백 1억천백

신동 112/34 1억천백

월곡동 109/33 6천5백 6천5백

남구 시내동 118/36 2억5천백 1억7천백

봉산동 105/32 1억천백 1억천백

봉동 105/32 1억천백 1억천백

봉동 105/32 1억천백 1억천백

남구 시내동 118/36 2억5천백 1억7천백

▶주택

지역 소재지 대지/건물㎡ 경첨가 최저가

광산구 월드컵 251/76 3%5천 2억4천4백

서구 월드컵 105/32 1억5천백 1억5천백

남구 월드컵 10